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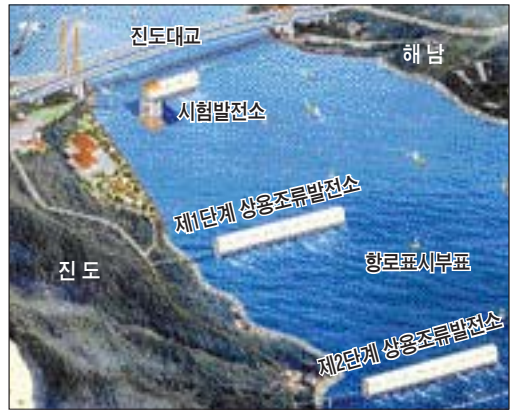
목포권

울돌목 조류발전소 건설 차질

바지선-진도대교 충돌등 잇단 사고...설비 수리중
건교부 설치 장소이전 요구 등 일정 수정 불가피

울 연발 완공예정인 울돌목 조류(潮流) 발전소
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76억원을 들여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과 진도군 군내면 녹진 사이 울돌목에 건설
중인 조류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인 1천3백급으로
지난 2005년 6월 착공됐다. (조갑돈)

지선이 조류에 휩쓸려 진도 1대교 교각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발전기 설비가 크게 파손돼 현재
인전에서 수리중이다.
더욱이 건설교통부는 2차에 걸쳐 충돌 사고가
발생하자 발전소 부지를 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해 발전소 건설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새로운 부지에 조류발전소 건설이 추진
될 경우 준공이 더욱 늦어지는 등 전반적인 건설
일정에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국해양연구원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수리를
마친 발전기 설비를 진도로 옮겨 설치, 11월 중에는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며 "부득이하게 발전



소 장소를 옮기더라도 최대한 공기를 앞당길겠다"
고 말했다.
한편 울돌목은 최대 12노트(초속 6.2m)의 강한
조류가 흘러 조류발전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울돌목 조류발전소의 사업타당성이 입증되면 발전
(發電) 전분회사인 한국 동시발전(주)이 오는
2010년까지 총사업비 2천억원에 들여 최대 9만kW
의 1·2차 상용 조류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군 3함대 "목포 이전 命 받았습니다"

해군 3함대가 15일부터 목포에서 새 임무를 수행한다.
해군은 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진해 작전사령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부산에 있던 3함대를 목포
로 이전했다. <사진>

내일부터 임무 수행... '목방사' 61년만에 역사 속으로



해군 3함대의 목포시대 개막으로 전·광시 한미연합작전 및 통합
방위작전의 효율성 강화는 물론
지역 안보역량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3함대는 제주도를 포함해 전라·
경상도 등 해군 작전지역의 44%
에 해당하는 광활한 해역을 담당
한다.
목포로 이전하는 해군 3함대는
지난 1946년 9월 24일 부산기지사
령부로 창설돼 6·25전쟁 당시 대
한해협전선 승전을 비롯해 대포,
여수 등에 침투한 간첩선과 잠
수정을 격침시키는 등 혁혁한 전

과를 쌓아왔다.
3함대의 목포 이전으로 서남해
역수호 임무를 수행해 온 목포해역
방어사령부(이하 목방사)는 61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목방사는 1946년 20여명으로 출
발, 1천여 명이 넘는 인원과 수십
척의 함정을 보유한 호남 유일의
장성급 해군 부대로 발전해왔다.
또 1993년 아시아나 민항기 추

락사고 구조활동과 1995년 폭설피
해 대민지원을 비롯해 도서지역
환자 긴급이송, 초동학생 영외교
육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목포시의 영양군은 15일 해
군 3함대사령부 연병장에서 각급
기관 단체장과 원대호 사령관, 3함
대 장병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환영행사를 갖는다.
/목포=이상희기자 ish@

무안~광주고속도 한시 운영 '무료통행제'
지역 차등 적용 형평성 논란

한국 도로공사가 무안~광주간 고
속도로 개통을 맞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무료 통행요금제'를 지역마다
달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는 지난 9
일 무안공항~나주 구간 30.4km를 개
통하면서 오는 17일까지 광주시민들
이 주로 이용하는 나주IC~무안공항
구간 통행요금 2천원을 받지 않고 있
다.
그러나 나주 문평 영업소~무안공
항 구간(20.7km)과 동함평~무안공
항 구간(15.6km)은 각각 1천4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반
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동함평과 나주 문평 영
업소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요금 부
과를 둘러싸고 직원들에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나주와 함평지역 주민들은 "정작
혜택을 누리야 할 지역 주민들에게는
통행 요금을 부과하고 외지인들만 우
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한시적
일지라도 공평한 요금체계를 적용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공사 측은 "광주공항의 국제
선 기능을 이전시켜 무안공항이 개항
된데 따른 광주시민들의 불만을 없애
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해
명했다.
/이종형 기자 glee@kwangju.co.kr



"신안선 금속공업품 보러오세요"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내일부터 내년 1월까지
목포시 용해동 갯바위에 위치
한 국립 해양유물전시관(관장 성
낙준)이 15일부터 내년 1월20일
까지 '신안선(船) 속의 금속공업'
특별전을 개최한다.
신안선에서 발굴된 금속공업
품을 주제로 한 이번 특별전은 국
립 중앙박물관과 광주·제주박물
관에서 대여한 유물들을 포함,
150여 점이 선보인다. <사진>
특히 생활용품과 종교용품은
물론 금으로 된 동전이나 개구리
모양의 연적 등 14세기 동아시아
의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유물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고 있다.
또 오는 24일에는 신안선 출토
금속공업품과 당시 동아시아
금속공업 문화의 실상을 알아보는
국제 학술대회도 열린다.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관계자
는 "이번 특별전은 신안선 출토
금속공업품을 통해 중세 동아시아
금속공업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선은 1323년 중국 경원항
(港)에서 일본으로 향해 도중 신
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중국 무역
선으로 지난 76년부터 84년까지
실시된 수중발굴 결과 도자기를
비롯한 많은 유물과 선박파편이
인양됐다.
/목포=이상희기자 sslee@

장흥댐 물 신안지역 공급...식수난 해소 기대

장흥댐 물이 신안지역에도 공급
돼 도서지역 식수난 해소에 기여
하고 있다.
상수원 부족으로 매년 제한급수
가 실시됐던 신안군 지도읍에는
지난 8월부터 장흥댐 물이 공급돼
식수난 해소는 물론 관광과 유치
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오는 12월 말 연륙교가 개통

되는 압해면 지역은 내년 8월 준공
을 목표로 150억원에 들여 1천800
t 규모의 배수지와 급수관로 105km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압해면 배수관로 공사가 준공되
면 신안지역 전체 인구 가운데 4만
3천명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어
상수도 보급률이 76%로 높아지게
된다. 또 군 행정타운을 비롯한 신

도시 개발과 대규모 조선타운 조
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신안군은 개인 급수전 공
사 대금을 공사완료 즉시 대형업
체에 지급해 업체 자금난을 덜고
공사 기간도 단축하는 수요자 위
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신안=조완필기자 wncho@

내년 1월 목포해경에 목포화전 불우이웃 돕기

내년 1월 목포해경에 3천t급 최신
에 경비함정인 태평양 8호가 배치된
다.
태평양 8호는 길이 110.5m, 최대
속력 20노트로 최신 위상 함방정차와
위상통신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1만
급 대형 선박을 예인할 수 있다.
또 파고 4m의 악천후 속에서도 임
무수행이 가능하며 초고속 구조정 2
대,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조난자
수용시설도 완비돼 있다.
초대 함장에는 박정수(52) 경정이
임명됐다.
/목포=이상희기자 ish@

목포화전 불우이웃 돕기
한국전력 목포지점이 최근 겨울철
을 앞두고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마
을공동 전기시설과 장애인 등 43세대
의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
했다. <사진>또 주요시설 PC점검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20세대에 대해 쌀과



생활필수품도 전달했다.
/목포=이상희기자 sslee@

목포 중앙병원 새 원장에 이승택씨 취임

목포 중앙병원 원장에 이승택(44·
사진)씨가 취임했다.
신임 이 원장은 전남대 의대와 대
학원을 졸업했으며 한국보훈병원 일
반의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뒤 목
포 녹십자 병원장, 중앙병원 부원장
등을 지냈다.
이 원장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중심의 전문
진료센터로 거
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준기
자 lyc@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합동법률경제, LC타워, 일가공인중개사, 대인동상임부동산, 국민공인중개사, and 21세기부동산컨설팅. Includes contact info and property listings.